

학령기 시설 아동의 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의 내적인 통제성향과 입소 환경 변인

유 안 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민 하 영 (대구가톨릭 대학교 사회과학부 아동학과 전임강사)

서 주 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혼율과 재혼률 증가 및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로 시설 수용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김응석 외, 1995; 변용찬, 이상현, 1998). 이 연구는 육아시설에 수용된 학령기 아동의 시설에서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과 심리내적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시설 수용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편의표집된 서울 소재 15개 아동복지 육아시설에 수용된 5, 6학년 초등학생 아동 119명이다. 조사 방법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고, 보육사 대상 설문지를 배포하여 우편으로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9.0프로그램의 t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é검증, 상호작용효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시설 아동의 시설 적응은 성별과 학년(연령)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부모접촉과 상호작용하여 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부모를 접촉하지 않는 여아의 경우, 더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다. 부모 접촉은 가정의 결합 가능성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시설 적응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설원아 중 부모와 접촉하는 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시설 적응은 입소시기와 입소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학 전에 입소하거나 입소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시설 적응을 나타냈다. 시설에서의 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아동이 시설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6학년 아동은 부모와의 접촉이 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5학년은 부모와 접촉하는 경우 부모와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시설 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과 상호작용하는 입소 시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5학년이라 해도 취학전 입소한 아동은 부모접촉유무와 관계없이 6학년 아동만큼이나 시설 적응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와 접촉을 한다해도 시설 수용 기간이 길어지면, 아동은 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해 회의적이게 되고 시설에 적응하려는 것 같다.

넷째,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내적인 통제소재가 높은 아동은 높은 시설 적응을 나타냈다. 내적인 통제소재는 자기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내적 동인으로 기 능할 수 있음(Wener, 1995)을 고려해 볼 때, 시설 수용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긍정적 적응은 내적인 통제소재 성향의 강화를 통해 높여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시설에 수용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내적인 자기보호 요인으로 내적인 통제소재 성향을 강화시키거나 개발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